

객사 주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

전주시-문화재청, 풍패지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위한 내년도 국비 52억 5000만원 확보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중심건물인 풍패지관(보물 제583호, 객사) 주변에 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을 위한 전수교육관이 조성된다.

전주시와 문화재청은 풍패지관의 원형 복원과 위상 재정립을 위해 전주 풍패지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위한 내년도 국비 5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비 22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75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풍패지관 서편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풍패지관 주변 토지와 건물이 매입되면 옛 풍패지관의 공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풍패지관에서의 조망권도 확보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토지 및 건물 매입이 완료되면,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위한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수교육관이 조성되면 국립무형유산원과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전주가 무형유산의 보존과 계승에도 앞장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무형문화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문화재인 풍패지관을 활



“연탄배달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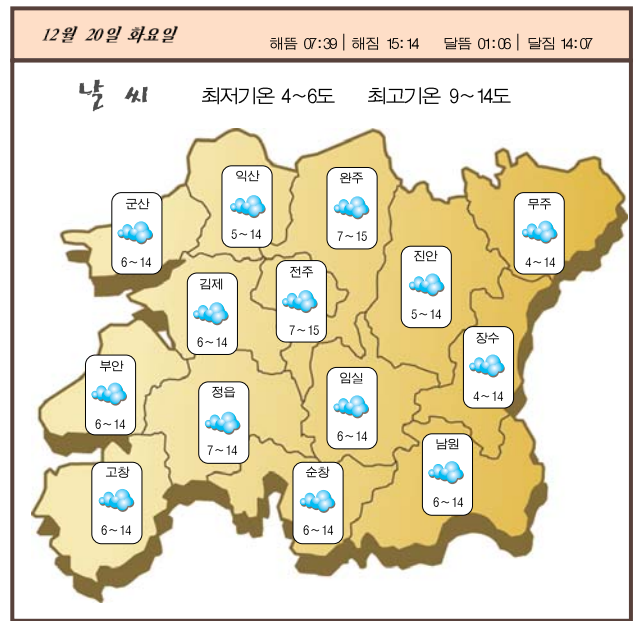
익산시 할라면 할라초등학교 학생들이 19일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통해 마련한 연탄을 지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용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풍패지관을 찾는 관광객들을 휴게 공간도 조성할 방침이다.

“조선왕조의 왕권을 상징하던 건물인 풍패지관의 원형 회복과 무형유산을 활용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국비가 확보된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

로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도시 전주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병원, 전북최초 IRB 국제인증 재획득

전북대병원(병원장 강병재)이 전북 지역 최초로 생명과학연구윤리 분야 국제인증인 FERCAP 재인증을 획득했다.

1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운영중인 생명과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지난달 20일~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FERCAP) 국제컨퍼런스'에서 생명과학연구윤리 분야 국제인증 재인증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의 이번 재인증은 전북 지역 내 IRB 중 최초로 국제 인증 및 재인증 받은 사례로 전북대병원이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 수행 및 IRB 심의 역량을 공인받은 것이다.

FERCAP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국내의 전문조사위원(Surveyor 4인, Trainer 6인)을 전북대병원에 파견해 IRB의 규정과 운영 시스템, 최근 3년간의 임상연구 심의 기록 및 시설 등 IRB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 기준 적격성 여부를 평가했다.

이번 FERCAP 국제인증을 통해 IRB의 심의 역량 강화 및 임상연구의 질적 향상 △윤리적인 연구 수행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연구대상자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기자

여성 노리는 범죄자 ‘꼼짝 마’

전주시 공원 전체 여성화장실 73곳 방법비상벨 ‘안심벨’ 설치

전주시가 여자화장실이 설치된 모든 공원에 방법비상벨인 ‘안심벨’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염려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해 공원에 설치된 전체 여성화장실 73개소(완산 52, 덕진 21)에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돼 경찰관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안심벨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심벨은 긴급 상황 시 비상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화장실 내 모든 칸막이와 세면대 옆에 각각

설치됐으며, 시는 비상버튼을 눌렀을 때 지나가는 행인이 쉽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평소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입구 주변 시야가 잘 확보되는 곳에 소음경광등도 설치했다.

시는 또 범죄자가 통신선을 미리 끊어 놓을 경우를 대비해, 통신선 절단사에는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 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완산·덕진 경찰서 및 양 구청과 지속적인 실무자 협의를 통해 최적의 안심벨 운영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지구대 협조를 얻어 상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점검 시 발견되는 시설 파손 등

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즉각 보수를 시행해 시설 훼손에 따른 공백 시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안심벨 설치로 보다 여성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난삼아 비상버튼을 눌러 경찰관이 출동하는 그런 비상사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본격적인 안심벨 운영에 앞서 지난 9월부터 16일까지 경찰서와 양 구청 담당자가 합동으로 전체 안심벨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무료주차장 실명제 간판 정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관내 무료주차장 54개소의 안전시설 점검과 함께 주차장에 지역 고유명칭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실명제를 통한 간판정비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설 점검반을 구성해 시 공영 무료주차장의 안전시설 점검과 안내판 전수 조사를 실시·변색·훼손되거나 내용수정이 필요한 안내판 18개소를 보수했다.

무료주차장 실명제 간판정비는 주차장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소재지와 관련된 고유 명칭 또는 도로명이나 건물명 연관어로서 주차장 명칭을 변경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주차장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시설공단 김신 이사장은 “쾌적한 주차공간을 위해 매주 주차장을 순찰해 시설물 점검, 주차장 내 쓰레기, 무단방치 차량, 주차면 요청사항 등을 조사해 보수하는 등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송창진 전 대한적십자사 전북도지사 회장 별세



전주고(1954년) 서울대 약학대학(1958년·약학박사)을 졸업한 송 회장은 전주 전 대한적십자사 전북도지사 회장, 전북직업자사 회장, 전북도지사 회장, 전북지구 IC 회장, 새마을운동 전북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09F지구총재, 국

제라이온스협회이사 등을 역임, 사회봉사·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상임위원(1988년~2001년), 한국IC부회장, 대한약사회부회장(1980~1982), 전북행정전문위원(1984~1990), 평통자문위원회 위원, 국제라이온스 한 국연합회 회장, 전주지방방법원 기사 조정위원, 전북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 송악구 대표, 적십자사 전북도지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빈소는 전북대병원장례식장 1층 지실이며 발인은 21일 오전 10시, 장지는 정음 화산공원묘지이다.

/김영재기자

국립승안사당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